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본격화

자문위원회 출범...기본구상·타당성 조사 등 점검

주거·관광체류형 조사용역 지역민 환경개선 기대

장성군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성군은 14일 ‘관계 공무원과 ㈜고려시멘트 담당자, 군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인근 주민대표 16명으로 구성된 ‘고려시멘트 부지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지난 2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공동수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고려시멘트 부지의 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조사에 대한 용역비용 2억원을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각각 1억원씩 부담하는 것이 주된

협약 내용이었다. 자문위원회는 ㈜고려시멘트 부지의 개발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문가·실무자·인근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자문 역할과 조사용역 결과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유두석 장성군수가 이를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운 지난해부터다. 이제까지 ㈜고려시멘트가 장성군 경제에 기여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부터는 환경문제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게 유 군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유 군수는

상생발전을 위해 ㈜고려시멘트 공장부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실무자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이에 ㈜고려시멘트 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 개발모델 구상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함께 조사용역 중인 개발부지의 범위는 공장 건축물 및 인근 토지 32만㎡와 경도, 재굴장을 포함한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크고 공장, 경도 등 독특한 형태의 산업자원이 남아있어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형’



장성군 소재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려시멘트 전경. /장성군 제공

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관광체류형’, 주거와 신 성장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형’, 백화점 복합단지나 종합 유통단지 등의 ‘상업형’ 등을 두고 폭넓게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려시멘트 공장부지가 주거형으로 개발되면 수천 세대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광, 유통,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장성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4만5천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4개국 주한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순천만국가정원서 개막

미국 등 24개국 주한대사 참석...市, 정원문화 확산 앞장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천시는 14일 “시 승격 70주년과 국가정원 지정 5주년을 축하하는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이 4만 5천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의 개막식에는 창군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사전공연으로 시작돼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에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해 ‘세계가 다함께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녹색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엘살바도르 대사(Milton Alcides MAGANA HERRERA)는 “순천시의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잘 나타난 행사로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순천시가 세계 최고 정원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개막식 공연으로 진행된 ‘국카스텐’의 축하 무대는 하현우의 폭발적인 보컬과 레이저 등 특수효과까지 더해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 외에도 국가정원 갯벌공연장에서는 러시아 아르츠크시 예술단의 러시아 전통춤과 노래 등 공연이 10-12일까지 진행됐고 동문 상설행사장에서는 ‘세계문화 플라마켓’이 열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국가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전통 춤과 음악 공연을 모든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순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를 계기로 환경과 정원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정원문화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는 행사 기간 동안 세계 16개국(러시아, 인도, 독일, 미국, 멕시코, 태국, 몽골, 중국, 일본, 영국,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집트, 한국)의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지구촌 장터로 음식, 특산물, 공예품 등 다양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순천=남정민기자

담양 꿈드림 청소년 ‘2019 다르기’ 전시 눈길

〈더불어, 함께라는 뜻의 옛말〉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이 청소년·어린이 행사인 ‘조각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꿈 2019 다르기’ 전시회에 참가해 준비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전시회를 갖는 ‘다르기’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조각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꿈 2019 다르기’ 청소년·어린이 행사는 지난 3-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다르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의 옛말이다.

이번 행사는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티셔츠에도 작품사진을 넣어 야외광장에 전시해 선보이는 ‘꿈나무 빨래’와 ‘조각보 잇기’ 전시로 채워졌다. 꿈드림 청소년들은 올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미술 선생님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제작한 미술작품은 광주 대촌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과 함께 조각보로 이어 전시됐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담긴 티셔츠는 ‘꿈나무 빨래’라는 이름으로 전시됐는

데 이 티셔츠는 전시 이후 캄보디아 ‘돈보스코 품쳐레 스쿨’ 어린이들에게 기증돼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관계자는 “스마트교실 운영, 취업 패기치 연계, 멘토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자립지원 등 학업포기 혹은 중단, 미취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양시,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주력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진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광양시는 14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가스보일러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가스보일러는 총 50대를 보급하며 1가구당 1대 16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민 중 지방세 체납이 없고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가스보일러(한국환경사업기술원의 환경표지를 인정받은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세대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은 총 5대로 1가구당 1대 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이며 세대자인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

으면 된다. 친환경 보일러는 전기보일러와 저녹스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콘덴싱 기술이 적용된 기름 보일러를 말한다.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6월 7일까지 광양시청 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가스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고흥군, 치매안심마을 5곳 지정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지역사회 치매 안심 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해 도양읍 대봉마을 등 5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각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 자원(읍사무소, 도양읍 파출소, 학교, 농협 등)을 중심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인식개선 홍보활동,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지원,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강화해 제공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의 운영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이 앞장서는 치매안심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제1호 치매안심마을을 기점으로 제2호, 제3호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신용원기자

오피스텔 [급 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웅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뒤편 1분 (코너)
- 1층 (상가)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웅2억5천 ,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법지,개발, 절반가격)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 2.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건171평)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 4. 북구 용봉동 (다가구원룸) (토 80평,건165평)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